

# 4·19부터 세월호까지 격동의 역사 헤쳐온 정론직필

## 광주일보 66년 걸어온 길

### 호남예술제·이웃돕기 등 공헌사업 5·18 진상규명·행방자 찾기 앞장 자매지 '예향' 문화도시 방향 제시 호남 첫 2만호...100년 신문 박차

'창간 66주년'을 맞은 광주일보의 발자취는 그 자체로 광주·전남의 역사였다.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보는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 2월11일 창간됐다. 이후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가 추진한 '1도(道) 1사(언론사)' 정책에 따라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이 통합, 그 해 12월1일 광주일보로 제호를 바꿔 현재에 이르렀다. 광주일보는 5·18 민중항쟁 여파로 1980년 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10일간 일시 중단된 것과 공휴일을 제외하곤 매일 신문을 발행했다. 2015년 5월28 일에는 호남지역 최초로 지령 2만호를 발행했다.

◇1952~1959년 창간 초기=1952년 2월11일 발행된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2개 면이었다. 제호(題號)는 한자 중시(繼壽)로, 오른쪽 상단에 한국 지도의 바탕 위에 '전남일보(全南日報)'라고 썼다. 창간호는 당시 사회·정치 상황을 반영, 1면 대부분을 판문점 휴전회담 기사로 장식했다. 창간호는 2000부가 인쇄돼 광주 시내에 배포하고 지방에도 발송했다. 1958년 5월1일부터는 지방지 최초로 매일 4개면 발행에 들어갔다. 1959년 1월부터는 월 2회 휴간하던 정기휴간제를 폐지하고 연중무휴로 신문을 발행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도 병행했다. 창간 초기 나주 비료공장 유치 운동을 벌이고 호남 예술제 창설(1956년), 지역특산물 전시회, 미소전남 신발대회를 개최했다. 마라톤·야구·바둑 등 각종 대회를 열었고, 어려운 이웃과 이재민 돕기에도 앞장섰다.

◇1960~1970년대 시련과 역동의 시기=1960년대 초반은 3·15 부정선거, 4·19 혁명, 5·16 쿠데타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했다. 옛 전남일보는 군부대의 부정선거 실상과 투표장 분위기를 사실 그대로 전하는 기사를 냈다. 또 광주·전남에서 진행된 4·19 시위를 신속히 보도, 시민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도 자처했다. 1965년 6월3일자 신문은 '정국권 소멸이란 무슨 말인가'라는 제목의 사설로 굴욕적인 대외 외교 협상을 비판했다.

흔쾌했던 시국과는 달리 사세는 승승장구했다. 1962년 12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금남로 시대'를 열었다. 날로 늘어나는 부수 확장에 따라 옛 전남일보는 1968년 10월9일 기존의 전남북 2도지(道紙)에서 전국지(全國紙)로 등록했다.

1963년 11월에는 취재전용 비행기 '무등산호'가 도입됐다. 무등산호 도입으로 보도 기능이 한층 강화됐고, 사건 현장의 항공취재는 물론 각종 기획기사 취재에도 입체적으로 활용됐다.

이 보다 앞서 밤시간대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총장로의 한 건물 5층 옥상에 전광뉴스판을 설치, 가

동에 들어갔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6년에는 월남전의 생생한 취재를 위해 1개월간 중군기자를 특파하기도 했다.

발전의 거듭한 옛 전남일보는 1969년 7월16일 지방지 최초로 컬러 신문 시대를 열었다. 이 시기 옛 전남일보는 종합매스컴센터를 구축, 언론 기업으로서 터전을 다졌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창간된 '주간 소년'에 이어 1971년 '전일방송국'을 개국, 신문과 라디오로 입체적인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5·18민중항쟁과 광주일보 창간(1980년대)=광주민중항쟁이 날로 격화되면서 1980년 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10일간 신문 발행이 중단됐다. 5월27일 전남도청 진압 후 시민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계엄 선포에 따라 보도 검열이 진행됐고, 공정 보도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일 다시 발행한 신문은 1면에 "애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필설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참극을 참고 견디신 애독자 여러분 앞에 보은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로 시작한 '속간의 말씀'을 담았다. 그 아래에는 "광주사태 희생자 명복을 빕니다"라는 사원 일동 명의의 7단 광고를 실어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이후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은 신군부의 언론사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80년 11월29일 문을 닫는다. 두 신문은 통합돼 제호를 '광주일보'로 하고 12월1일 창간호를 냈다.

광주일보는 6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상규명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1988년 2월 4일자 사설에서 광주사태 지유체 마련을 위해 발족한 민주화추진위의 활동에 대해 "광주사태는 보상문제 보다 진상규명이 앞서야 한다. 사건자체의 원인과 실상 등 진실을 덮어둔 채 사건을 매듭지으면 또 다시 역사는 왜곡되고 그 역사는 조명할 필요성을 잃게 되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후로도 현재까지 광주일보는 5·18진상규명을 위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5월이면 5·18관련 기사를 집중 게재하고 있다.

◇전일방송 10년=1971년 4월24일 정오를 기해 첫 전파를 송출했다. 빠르고 빠른 뉴스, 공정한 논평으로 매 시간마다 편성된 전일방송의 뉴스는 타 방송의 추종을 불허했다.

특히 야구 중계방송, 각종 프로그램 공개방송, 광복 20년 등은 지역민들의 문화갈증을 풀어줬다. 1970년대 전일방송의 공개방송이 열린던 광주공설 운동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운집하기도 했다. 전일방송은 그러나 신군부의 언론 통제정책으로 첫 전파를 탄 지 3507일 만인 1980년 12월1일 0시를 기해 KBS로 강제통합되는 비운을 맞았다.

◇1987년~현재=1987년 발표된 6·29선언으로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언론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또 언론의 홍수시대와 IMF경제위기, 신문산업 쇠락 등으로 언론환경이 열악해졌다. 그러나 광주일보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1996년 6월 인터넷 광주일보(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시도했다.

1994년 4월에는 전면 가로쓰기로 신문이 제작됐다. 문화예술 매거진 월간 '예향'은 지난 1984년 10월 창간됐다가 2002년 2월(통권 209권) 발간을 멈췄다가 2013년 4월 복간됐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는 1965년부터 4년 동안 '백마부대에 전남일보'라는 타이틀로 파월장병에게 신문 보내기 운동을 진행했다. 사진은 전장에서 고향 소식이 담긴 옛 전남일보를 읽는 장병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1952년 2월11일 발행한 창간호와 2015년 5월 28일자 광주일보 지령 2만호. 문화예술전문 월간지 '예향' (왼쪽부터). 광주일보의 창간일은 1980년 12월 1일이지만 광주일보의 뿌리인 옛 전남일보의 맥을 잇는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창사일을 옛 전남일보의 등기가 법원으로부터 확정, 교부된 날인 4월 20일로 잡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5·18 현수운동·저출산 극복 시리즈...기록 넘어 행동으로

### 지역을 바꾼 기획·연재를

광주일보는 왜곡된 근·현대사를 재조명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다채로운 기획물과 지역언론을 선도하고 있다. 영산강, 무등산 보호운동, 5·18국립묘지 현수 캠페인 등 굵직한 사업을 주도했다. 지상(紙上)에서만 지역민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이 아닌, '행동하는 캠페인'을 벌여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몫을 해왔다. 광주일보가 지난 1960년 4월 23일부터 광주 4·19 전개과정과 뒷얘기들을 기록한 '光州학생 4·19 발자취'라는 기획물은 '광주 저항의식'의 뿌리를 찾은 역사적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일보는 4·19 희생자·유가족 돕기 운동과 기념사업 캠페인도 전개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회관 건립운동도 추진, 지난 1967년 11월 3일 준공하는데 큰 역할을 맡았다. 광주일보는 또 1975년부터 무등산 가꾸기 운동에서 '도림공원 1번지 무등산 정원화를 위한 범시민 캠페인', '무등산 나무심기 캠페인', '무등산을 살리자', '무등산 정상 개방'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무등산 보호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973년 9월 1일부터 1975년 8월 15일까지 2년간 553회에 걸친 연재물인 '광복 30년'과 1975년 12월 1일부터 1977년 7월 21일까지 439회에 걸쳐 연재한 역사기획물 '義勇列傳(의병열전)'은 한국 신문사에 큰 족적을 남긴 연재물로 평가받고 있다. '5·18-9년'은 1989년 7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47회를 게재하며 5·18 진상 규명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일보는 또 '5·18 국

립묘지에 민주나무를 심자'는 보도를 계기로 5·18 묘지를 국민 성금으로 모아 조성하자는 '현수'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은누리안 리포트-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고마워요 당신의 탐방울-외국인 노동자의 삶과 꿈',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다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 대안찾기' 등 다문화사회 기획물을 연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함께 걸어요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남북민들의 이야기를 연재했으며 올해에는 '아이가 꿈이다'는 주제로 저출산의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싣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촛불시위 현장을 지키며 관련 기획물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김형호기자 khh@

## 영광전원주택(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10평), 마당전체 잔디(고급파라솔 설치)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3천◆  
매매가 9천 7백

주인직매 010-6670-9800

## 신축 원룸매매

◎ 전대 정문 2분  
◎ 총 4층건물

(원룸 13개, 투룸6개)  
4층(안집)-최고급시설

보7천만 월수익 700만

◆ 매가 : 13억 5천 ◆  
(용 3억5천 가능)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매가 8억3천

② 산정공원바로앞(코너)1층상가(2개)원룸(12개)  
4층(최고급주택)월세 550만 ▶매매가 9억5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매가 8억5천만

010-6670-9800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토 71평, 건 179평 ▶감평가 45억3천 → 최저가 45억3천	5) 북구 문흥동 (3층원룸) 토 57평, 건 101평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3억6천
2) 서구 화정동 (5층 상가빌딩) 토 125평, 건 460평 광주 새우리병원 앞 (코너) ▶감평가 13억2천 → 최저가13억2천	6) 동구 학동 (3층원룸) 토 81평, 건 101평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3천
3)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평가 6억 → 최저가 6억	7)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감평가 3억 → 최저가 2억1천
4) 서구 내방동 4층 상가건물 토 77평, 건 123평 ▶감평가 5억3천 → 최저가 5억3천	8)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9)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10) 남구 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평가 14억6천 → 최저가 14억6천
	11) 서구 매월동 (정체식당) 토 3,302평, 건 3,956평 감평가 2백70억 → 최저가 190억

A.P.T	주택	토지.기타
① 서구 용암동 주안아파트 (24평)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⑥ 북구 용흥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 17평 감평가 9천 → 최저가 6천9백	⑬ 광산구 월산동 토지 1,039평, 건물 240평 감평가 88억 → 최저가 48억
② 서구 내방동 배영주공아파트(24평) 감평가 2억4천 → 최저가 1억9천	⑦ 광산구 월계동 (중주제) 토지 88평 건물 75평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2억5천	⑭ 광산구 월동 (공동) 토지 2,200평, 건물 1,250평 감평가 10억 → 최저가 4억
③ 서구 화정동 마추아파트 (28평)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⑧ 남구 주월동 (주택) 토지 40평 건물 42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1억	⑮ 서구 용암동 (농지) 1,000평 감평가 6억9천 → 최저가 4억9천
④ 광산구 쌍촌동 신부영 (28평) 감평가 2억 → 최저가 1억4천	⑨ 북구 용봉동 (주택) 토지 37평 건물 28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1억	⑯ 광산구 비호동 (농지) 13,000평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4천4백
⑤ 동구 용암동 관아아파트 (28평)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3천		⑰ 서구 용암동 (농지) 1,300평 감평가 6억9천 → 최저가 4억9천

010-7384-7800 010-6670-9800

## 경매 교육 (4월초 개강)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③ 무료반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